



오원군 과보 정묘보 서 (五原君 派譜 丁卯譜序)

유국유사(有國有史) 하고 유성유보(有姓有譜)는 고역유지(古亦有之) 하고 금역연의(今亦然矣)라 왕석지치란성쇠(往昔之治亂盛衰)와 득실존몰(得失存沒)을 비사이 하가증야(非史而何可證也)며 전계지구보중차대(史與譜重且大)는 불대철회설(不待贅說)이라 고금서구풍조(顧今西歐風潮)가 입아동방(入我東方) 하여 예의윤강(禮儀倫綱)이 기호소계(幾乎掃地) 하며 동조지손(同祖之孫)을 상시여로인(相視如路人) 하고 경시족보자(輕示族譜者)가 비비유지(比比有之)하니 차(此)는 국속지폐(國俗之弊)와 사고지오(思考之誤)가 심의(甚矣)라. 희(噫)라. 오이지덕성(吾李之德姓)이 태조대왕(太祖大王)二十二세조(世祖) 휘(諱)에 한(翰)으로 위시(爲始)하여 국성거갑지족(國姓巨甲之族)으로 양명족아동(揚名族我東) 하고 대군거경(大君巨卿)과 명현달사(名賢達士)가 계세연면(繼世連綿)하여 심려불억(甚麗不億)이라. 대동작보(大同作譜)가 간세계속(間世繼續)하니 권질(卷帙)이 호번(浩繁)하여 봉심(奉審)이 불역(不易)하고 세도(世途)가 점원(漸遠)하여 수호(守護)가 역난(亦難)이라. 수여재경증친회장(遂與在京宗親會長) 즉속건택씨여근족(族叔建澤氏與近族)으로 순의함모(循議

合謀(하여 경수 과보이도 그간편(更修) 派譜以圖 其簡便)이라. 자일세 오원군 휘(自一世 五原君)의 휘(諱)보정(寶丁)으로 지우(至于) 十三대 휘(諱)건징(建徵) 하여 직서 직계지 조(直書 直系之祖)하고 불급어 방선조자(不及於 傍先祖者)는 명오 조고야(明吾 祖故也)라. 이하척 열거손록(以下則 列舉孫錄) 하여 근지 일책자(僅至 一冊字) 하여 가가장(家藏)하고 인인봉(人人奉) 하여 시시 배독(時時 拜讀)에 선조의적(先祖懿蹟)과 후손지 분파(後孫之分派)가 요연재목(瞭然在目)이라. 정부자 소위 수종족후 풍속지의(程夫子 所謂 收宗族厚 風俗之義)가 어사(於斯)에 득의(得矣)요, 어종(於宗)에 행의(幸矣)라.

요념 각종각과(要念 各宗各派)는 약이차예(若以此例)로 수취 수성칙(隨處 修成則)분 이위과보(分而爲 派譜)하고 합이위 대보(合而爲 大譜)라. 일망 거이만목(一網 舉而

萬目)이 장(張)하고 만파(萬派) 소이일원(溯而 一源)이 명의(明矣)라. 생호 천사

지후(生乎 千禩之後)하여 추구호 천사지전(追究乎 千禩之前)이 환약촉조(煥若 燭照)라.

그 규모(其 規模)가 수소략(雖 疎略)이나 그 공효지 진요(其 功効之 緊要)가 불가위 소략(不可謂 疎略)이니 차오 오원군과보 지성야(此吾 五原君 派譜 之成也)라. 불초(不肖)

가 외참 중회이사장 지임(猥 參 宗會理事長 之任)하여 보사 성시성종(譜事 成始成終)에

수사간무(隨事 幹務)하여 보기성(譜既成)에 종중 침현(宗中 僉賢)이 촉여수 지문(囑余

首之文)하여 불고문졸(不顧 文拙)하고 이서전미(以叙 顛末)하여 부제권수(付諸 卷首)

이라. 시역야(是役也)에 족속 건택씨(族叔 建澤氏)가 족제 성하(族弟 成夏)의 적극적

(積極的)인 성원(聲援)으로 전고박식(典古博識)과 예의운강(禮儀倫綱)과 관훈상제(冠婚喪祭)에 미불곡창(未不曲暢) 방통(傍通)하여 사차 무문지후예(使此無文之後裔)로 독이송지(讀而誦之) 하고 습이전지(習而傳之) 하여 송조지성(崇祖之誠)과 효친지도(孝親之道)와 경장지례(敬長之禮)를 응흡교도(融洽教導) 하여 보시전진(普施前進)케 하였으니 약비 족속지성력 박학(若非族叔之誠力博學)이면 기이지 차야(豈以至此耶)아 내후지예손(來後之裔孫)이 호차 건택씨(効此建澤氏) 지성심(之誠心) 하여 계이물체인지척 오종승선유후(繼而勿替引之則五宗承先裕後)에 영세익창의(永世益昌矣)리라. 최위현노(最爲賢勞) 하여 특표이서지(特表而書之) 하고 그 여제종(其餘諸宗)도 극가협찬(極加協贊)이라 시위지서(是爲之書)니라.

一九八七年 丁卯 八月

오원군 십사대손(五原君十四代孫)

오원군 종친회 이사장
五原君 宗親會 理事長

충하서
忠夏序

一世 德泉君

諱厚生

封君

正義大夫贈諡積德公贈光祿大夫領宗正卿
不祧廟 功臣
定宗大王의 第十男
이시며
太祖丁丑에 誠嬪忠州池氏에게서 夢白麟而生하시니 自幼로 孝友根天하시고 仁厚過人하시와
上이 奇愛之하시以厚字로 錫名하시고及封君定號하시니斗太宗께서 取源泉不渴之義하시特書德泉君三字以賜之하시다 嘗侍宴하시天威 震疊하시掌膳者를 當斬하시하시니 公이 泣下龍擢하야 引古吞蛭事以奏之하시니
天顏이 稍解하시即收其命하시고 曰賢哉斗吾侄이여 非汝이러하시고 再三稱

二世 新宗君

諱孝伯

太宗丙申生初授副正武科魁 文科二等官兵曹參判承憲大夫
與弟雲水君諡襄胡孝誠으로 叔建宗親府하시고 爲有司堂上하시니 宗法이 一新이라 君號爲新宗君이라 하시다
累奉命聘中國하시니 帝嘉其忠幹하시特解所御黃佩纓子以賜之늘 君이 繫結於筮而拜謝하시고 歸國之後에 亦許以佩服하시고 不以爲僭하시다
又善射하시니 人稱聖祖之神弓이라 稱成宗丁未三月十三日卒○壽七十二歲○諡恭簡公이라○墓廣州郡樂生面道論里乾坐有表石 墓誌九世孫匡師撰○配縣夫人同知中樞禮安(江陵)崔景禮女
太宗乙未生正月二十三日卒○墓雙窰

三世 莞城君

諱貴丁

西紀一四五四年端宗甲戌生階正義大夫成宗朝錄誦運原從勳하되 封莞城君하시다
中宗丁亥三月二十一日卒壽七十四歲
墓果川北面黑石里現시 黑石洞山七九의 一異坐碣銘承文參校沈思順撰墓誌八世孫參奉匡尹撰
配縣夫人判官白川趙碩堅女二月十九日卒○墓雙窰公은 工於衆藝而積精於射하야 沙質能絀人으로서 常荷成廟殊眷이라 一日射獻天鵝하시니 上이 踵問發中之由하시고 因用御府勁弓以償之曰 操此則可用一矢中至雄強故로 上이 以此調之하시니 君臣數遇에 事出尋常이나 聞者莫不豔之리다 言官이 論利中興未功之超據珥貂猥者하야 至改月抗爭之리다 上이 公先朝舊臣宗戚者老로 特論其不可改而允其餘하되 公生長綺紈

四世 化寧副守

諱繼性

璿譜作繼姓
墓果川北面黑石里良坐
配慎夫人判官漢陽趙云明女○墓合窰
坐
子一 宗胤

五世 宗胤

諱工監役

墓果川台村西坐
配別坐白川趙汝猷女○墓雙窰
女申 楷 平山 人
女安伯增 竹山 人
女李宜慶 慶州 人
女安瑞 順興人 判決事
子一 億孫 字大春 一四九
七年燕山丁巳生司馬兩場○文科翰林直學○黃海監司通政大夫中宗戊戌五月七日卒贈吏曹判書○墓上同已坐有表石○配員夫人參奉全州黃濬女丁巳生壬寅十二月三日卒○墓合窰

六世 德男

子一 善男

子二 孝男 副護軍
墓果川陶谷良坐
配同知玄風郭希禎女○墓合窰
女柳 滌
女安士信
子一 惟貞 贈君 中宗庚辰四月十五日生進士○洗馬○縣監宣祖己卯二月十七日卒贈領相完溪府院君○墓楊州郡南面華山里舍利峰下子坐有表石○配別坐安東金麟瑞女中宗庚辰四月十日生宣祖辛卯七月二十五日卒○墓合窰

景敏

子三 惟敏 丁亥生 進士○縣監吏曹佐郎壬辰卒
子二 惟寬 壬午生 丙午卒 女恩津宋通訓大夫南原府使○墓洪城郡洪東面大英里寒沙後山○配司評漢陽趙諤女辛巳生丁未卒○墓合窰

準凝

清 純祚

馮 潔